

독감을 물리칩시다

온타리오 주 전지역 무료 접종

독감은 감기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심하게 앓아누울 수 있습니다. 독감에 의한 병은 연례 독감 예방접종으로 그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올가을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십시오.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는 무료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의 건강한 사람은 금기 증상이 없는 한 독감 예방접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4-05년도 독감철에 대한 국립 면역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NACI)의 발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 생후 6-23개월의 건강한 아동
- 65세 이상인 사람
- 생후 6개월 이상으로서 치료를 요하는 만성 심장 또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생후 6개월 이상으로서 당뇨병이나 기타 신진대사 질환, 암, 신장 질환, 혈액 질환, 면역 체계 약화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요양원, 장기 치료소, 만성 질환 치료소, 양로원, 병원, 기타 보건 시설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
- 생후 6개월 이상으로서 독감 합병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과 동거하거나 접촉하는 사람
- 생후 6개월-18세로서 장기간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치료를 받은 사람
- 발병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자택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독감철에 출산할 예정으로서 신생아에게 독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임신부, 또는 독감철에 임신 4개월 이상이 되는 임신부
- 구급 요원(구급차 요원, 소방수, 경찰관 등) 및 기타 필수 서비스 제공자
- 신생아에서 생후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집안이나 집밖에서 정기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폐쇄된 환경 또는 비교적 폐쇄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발병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선원 등)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생후 6개월 이상으로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외국을 여행하기 때문에 합병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

닭이나 오리 등 산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지난해에 맞았다고 해서 올해도 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이 심각한 해를 일으킬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방접종이든지 그 이로운과 위험에 대해 항상 보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정의, 간호사, 약사, 또는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1-866-FLU-’N YOU (1-866-358-6968) (TTY 1-800-387-5559)로 전화하면 집 가까이 있는 진료소를 안내해드립니다. 독감 및 예방접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ealth.gov.on.ca.

무료 독감 예방접종. 슬기로운 대비.